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3년 5월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일정	2
III. 연수참가자	3
IV. 방문 국가 개요	5
V. 주요 방문지별 연수내용	12
VI. 연수결과 총평	22
VII. 연수자 소감문	24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벤치마킹
- ▶ 국외 유명도시의 문화 역사지구 활용 및 도시재생에 대한 우수정책 현장 방문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3. 4. 21.(금) ~ 4. 30.(일)/ 8박 10일
- 연수국가 : 미국, 캐나다
- 참여인원 : 41명(시·군의회 의장 17, 공무원 24)
- 보고서 대표 작성자 : 의장 강필구의외 2명
- 내 용 : 미국, 캐나다 시의회 견학 및 우수정책 견학
- 주요방문지
 - 뉴욕 센트럴파크, 첼시마켓
 - 미국 국회의사당,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 토론토 시청, 몬트리올 시의회, 퀘벡 어퍼타운
 - 보스턴 주의사당, 하버드 대학
 - 뉴욕 팰리세이즈 시의회

II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요방문일정
4/21 (1일차)	뉴욕	OZ 221 전용차량	12:00 15:00	뉴욕공항 도착 첼시마켓 탐방
4/22 (2일차)	워싱턴	전용차량	13:30 15:00	국회의사당 견학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4/23 (3일차)	캐나다국경	전용차량		국경이동
4/24 (4일차)	토론토	전용차량	14:00	토론토 시청, 시의회
4/25 (5일차)	몬트리올	전용차량	14:00	몬트리올 시의회
4/26 (6일차)	퀘벡	전용차량	11:00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 탐방
4/27 (7일차)	보스턴	전용차량	15:00	보스턴 주의사당 하버드대학 견학
4/28 (8일차)	뉴욕	전용차량	12:00	펠리세이즈 시의회 뉴욕 9.11 테러 현장 센트럴파크 견학
4/29 (9일차)	뉴욕	OZ 222	12:50	뉴욕공항 출발

Ⅲ 연수 참가자

□ 의장단 명단

연번	의회명	사 진
	성 명	
1	영 광 군 (협의회장)	
	강 필 구	
2	여 수 시 (부 회 장)	
	김 영 규	
3	구 례 군 (부 회 장)	
	유 시 분	
4	신 안 군 (감 사)	
	김 혁 성	
5	곡 성 군 (사무총장)	
	윤 영 규	
6	목 포 시	
	문 차 복	
7	순 천 시	
	정 병 회	
8	광 양 시	
	서 영 배	
9	담 양 군	
	최 용 만	

연번	의회명	사 진
	성 명	
10	고 흥 군	
	이 재 학	
11	화 순 군	
	하 성 동	
12	해 남 군	
	김 석 순	
13	영 암 군	
	강 찬 원	
14	무 안 군	
	김 경 현	
15	장 성 군	
	고 재 진	
16	완 도 군	
	허 궁 희	
17	진 도 군	
	장 영 우	

□ 수행원 명단

연 번	의회명	성 명	비 고
1	영 광 군 (간 사)	황 우 섭	
2	영 광 군	전 정 용	
3	여 수 시	여 철 주	
4	여 수 시	조 지 훈	
5	구 례 군	박 민 욱	
6	신 안 군	김 승 인	
7	곡 성 군	정 수 철	
8	목 포 시	김 명 준	
9	목 포 시	김 명 환	
10	순 천 시	우 현 응	
11	광 양 시	탁 사 민	
12	광 양 시	한 승 화	

연 번	의회명	성 명	비 고
13	담 양 군	강 형 주	
14	고 흥 군	김 도 형	
15	화 순 군	김 석 태	
16	해 남 군	이 대 주	
17	해 남 군	김 원 석	
18	영 암 군	서 성 수	
19	무 안 군	김 봉 준	
20	무 안 군	여 준 희	
21	무 안 군	박 래 욱	
22	장 성 군	홍 유 신	
23	완 도 군	김 찬 희	
24	진 도 군	이 현 욱	

IV 방문 국가 개요

미 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의 일반사항

- 위 치 : 북아메리카,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연안
 - 수 도 : 워싱턴 D.C
 - 언 어 : 영어
 - 화폐단위 : 미국 달러(USD, \$)
 - 면 적 : 9억 8,315만 1천ha, 세계3위
 - 인 구 : 3억 3,999만 6,563명(2023년 통계청, UN 기준)
 - GDP : 22조 9,961억 달러
 - 종 교 : 개신교 46.5%, 가톨릭 20.8%, 몰몬 1.6% 등
- ※ 출처 : 외교부, KOTRA

□ 개 요

-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본토와 알래스카·하와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海)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state)와

1개 수도구(district 약칭D.C) 외에 해외속령(海外屬領)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諸島)·웨이크섬·괌섬이 있다. 캐롤라인 제도는 1947년부터 1986년까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이 관할하였다.

-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본토 면적만으로는 네번째이다. 인구는 약 3억 4천만 명이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다민족국가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원주민은 아시아 대륙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주하여 정착한 인디언으로 추정되며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로서 유럽강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때 유럽에서 전해온 전염병으로 많은 원주민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다가 1775년에 시작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잃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분에 휩싸여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진정한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졌고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력의 확장과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에도 미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정치) 바이든 정부는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탈피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기초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 개혁 및 정부지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 新 행정부의 對중 견제 정책은 과거 정부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기술 냉전시대 돌입 시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美 의회는 중국 첨단 과학기술 개발 방식의 불공정성(암묵적 기술이전요구, 국영기업의 해외 인수 합병, 사이버 기술탈취 등)에 초당적 경각심을 보이고 있다.
- 바이든은 對북 전략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우선적 움직이는 '탑-다운' 방식의 외교 보다는 실무진을 필두로한 전략적 정책을 우선으로 수립하는 '바텀-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중립적 외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

략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만전을 가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품수입 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경쟁적 첨단기술 투자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정부는 TTP, CPTPP 등 다자적 경제 협정에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참여 요구가 고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新 행정부는 '미국 공급체인 재건' 약속했음으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대대적인 변화를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체인 구축을 위해 우방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을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 (문화) 지역별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국 교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인 타운으로는 LA와 뉴욕의 한인 타운을 꼽을 수 있다.
- 젊은 층들 사이에서 K-Pop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이며, 한국 음식과 한국식 소스는 미국 주류 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과거 한인 타운에만 집중된 한식당은 한인타운을 벗어나 도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Canada



□ 캐나다의 일반사항

- 위 치 : 북아메리카 대륙 북쪽
- 수 도 : 오타와
- 언 어 : 프랑스어, 영어
- 화폐단위 : 캐나다 달러(CAD, C\$)
- 면 적 : 9억 8,797만 5천ha, 세계2위
- 인 구 : 3,878만 1,291명(2023년 통계청, UN 기준)
- GDP : 1조 9,907억 달러
- 종 교 : 가톨릭 43.6%, 개신교 29.2% 등

※ 출처 : 외교부, KOTRA

□ 개 요

-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2번째 국가이며, 아메리카 대륙 북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선진 국가로서 석유, 철광석, 목재 등 자원이 풍부하며, 고기, 어류, 목재, 석유 등을 주로 수출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과 IT 산업 등도 성장하고 있다.
-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다문화사회이며,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이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캐나다 산악지대, 호수지대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헌법적 국가이며, 국가원수는 캐나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이며, 캐나다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민주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회제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캐나다는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정치) 캐나다와 한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 간 정치 관계는 안정적이다. 양국은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G20, APEC,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최근에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캐나다 외교부 장관급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Ansan Summit가 열렸었다.
- (경제) 캐나다와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는 2014년 3월 11일에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 양국 간 무역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한국의 캐나다 수출액은 83억 4천만 달러, 캐나다의 한국 수출액은 92억 5천만 달러로 기록되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가스, 목재, 양고기 등이며, 한국에서는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 또한,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대로 캐나다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자원 산업과 한국의 제조업 및 IT 산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두 나라 기업들 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 (문화) 캐나다와 한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 인종, 종교를 가진 다민족 국가이며, 한국도 고유의 전통문화와 동시에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 양국 간 문화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K-pop, K-drama 등은 캐나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캐나다의 영화, 음악, 문학 등도 한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양국의 예술가들 간 교류, 문화 축제 및 전시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V

주요 방문지별 연수내용

□ 미국 첼시마켓



- 뉴욕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첼시마켓(Chelsea Market)은 본래 쿠키 브랜드인 ‘오레오(OREO)를 만든 회사, 나비스코가 1900년 경 세운 공장이라고 한다. 그러다 공장을 확장해 뉴저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건물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만 1934년에 대형시장으로 처음에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상점들과 먹거리 부스, 골동품 부스, 공예품 부스 등이 모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 뉴욕 첼시마켓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재개발로 인해 시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계속 운영되었다고 한다.
- 첼시마켓은 뉴욕시가 운영하는 공립 시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과 수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상점과 부스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독특하고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 첼시마켓은 현재 까지도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첼시마켓을 둘러보며 관광이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든 뉴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새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의 진정한 볼거리는 랜드마크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건축물도, 미술관 별을 선사받은 맛집이나 곳곳에서 쉼을 제공하는 공원도 아니었다. 뉴욕의 현재를 이루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볼거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 하이라인이나 첼시마켓을 명물로 만든 것도 결국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감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을 뉴욕으로 이끈다. 뉴욕 도시재생은 단순히 장소만 변화시키게 아니다.
-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이유에서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았다. 벽, 천장 등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낡았다는 인상보다 세련된 미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오래된 벽화는 첼시마켓이 비스킷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버려진 드릴 비트와 노출된 파이프로 구성된 분수도 독특하다. 산업폐기물이 됐어야 할 것들이 이전과 다른 기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도시재생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하였다.

□ 미국 국회의사당

- 미국 국회의사당은 미국의 입법 기관으로서,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은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상징하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 국회의사당은 1793년에 건립 작업이 시작되었고, 1811년에 완공되었다. 윌리엄 토르프(William Thornton)가 설계하였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을 채택하였다. 초기에는 상원과 하원의 의회가 분리되어 위치해 있었으나, 1850년대에는 연결 건물이 추가되어 현재의 형태로 확장되었다.
건물의 주요한 부분으로는 중앙돔과 자유의 여신 상, 그리고 다양한 동상들이 있다. 건물 내부에는 상원과 하원의 회의실, 위원회 회의실, 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장식과 예술 작품들이 있다.
- 미국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6년마다 한 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상원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상원의원이 평등하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상원은 주로 법안의 제안, 수정, 토론 및 투표에 참여하며, 하원이 제안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 하원은 인구에 따라 각 주마다 할당된 국회의원 수에 따라 구성된다. 현재 하원은 43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한 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하원은 주로 세금, 예산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안의 제안, 수정, 토론 및 투표에 참여한다.

- 미국의 입법 과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을 검토, 수정,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법안을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된다. 법안의 제안은 상원과 하원의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제안된 법안은 각 의회에서 위원회를 통해 검토되고 수정된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수정된 법안을 투표하여 비승인 시, 협상위원회가 결성되어 상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안안을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법안안은 상원과 하원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을 통해 미국의 입법과정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건물 내외부를 탐방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역사적인 순간들을 상상하며 과거의 결정과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 토론토 시청, 시의회

- 토론토시는 캐나다의 대도시로서 다양한 우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의 강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친환경 건물 지원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 출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센터, 다문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 하우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녹지 보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 교육 및 문화 영역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의 개선, 도서관과 문화 시설의 보급, 예술 및 문화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토론토 시의회는 시장과 2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은 시의회의 정책 수립자이자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시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시의회 결정을 시행한다. 시의원들은 각각의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되며,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 토론토 시의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는 공개되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법안을 검토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시의회는 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의 인프라 개발, 교통, 주택,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토론토 시의회는 시의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시의 운영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시의회의 결정은 시의 행정부에 의해 실행되며, 시민들의 이익과 토론토 시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몬트리올 시의회



- 몬트리올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도시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취향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 또한 도시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차 및 공장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자연 보호를 위한 도시 숲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장이 시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 사항을 시행하며 시의원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하버드 대학교



- 하버드 대학교는 매우 역사적이고 유명한 대학교로 세계적인 학자와 인물들을 배출해 왔다. 대학교 건물들은 아름답고 특유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문적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및 클럽 활동, 인턴십, 해외 연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한다.
- 전통적인 강의 중심에서 협동 학습과 토론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 또한 학문적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고 강조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며,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개방적인 사고와 글로벌 시각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 뉴저지 팰리세이즈 시의회



- 뉴저지 팰리세이즈(Palisades)는 뉴저지주에 위치한 고급 주거 지역으로, 조지 워싱턴 대교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자연 경치가 아름답고 주변에는 팰리세이즈 주립공원과 팰리세이즈 클리프스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 또한 조지 워싱턴 대교를 통해 뉴욕 맨하탄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지이며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발달해 있어 시내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 이동이 용이하다.

○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한인 사회가 상당히 활동적이며 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인 사회는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시에서도 한인들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팰리세이즈 시는 이전 이탈리아 태생 시장의 이임 후 작년 말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폴 킴 시장이 당선되어 역사상 두 번째 한인 시장으로 2023년부터 임시를 시작했다.

○ 팰리세이즈 파크 시는 폴 킴 시장 겸 시의장과 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 킴 시장은 우리 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시 전체 인구의 60%가 한인들을 구성되어 미 동부 최대의 코리안 타운으로 알려진 팰리세이즈 파크 시를 한인의 품격과 장점이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발판이 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시는 뉴욕시와의 인접으로 인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 대중교통의 개선, 주거활성화 정책을 펼쳐 시민들의 재산 증식 및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또한,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가족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거주지 지원등의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고 했다.

-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한 자치행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가 국민의 지배라는 의미를 갖으며,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행정분야에서 상당히 폭넓은 자유재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
-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유형으로는 카운티 정부, 일반목적의 지방정부인 지방정부 의회와 서브 카운티 정부, 특별목적의 지방정부인 특별구와 학교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정부가 나름대로의 특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나아가려는 방향은 민주주의 정치의 올바른 실현을 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더욱더 반영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긴 역사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 소방, 경찰 등에 직접적으로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 및 운영권 등이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철학 및 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또한, 교육예산이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50%가 넘어 미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가 짧고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 캐나다의 경우 예산 편성시 교육과 복지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한 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동의하고 있다.
- 정책의 방향과 예산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고 있으며 미관 보단 효율성을 더 중시 여기며, 작은 불편함보단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시민의식과 도시와 마을의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관과 지방의회,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 끝으로, 아직까지 백인우월주의가 암묵적으로 있는 미국에서 선출직에 도전하여 당당히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폴 김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당국 관료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설명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VII 연수자 소감문

1 미국의 선진 지방자치 사례를 살펴 보며

영광군의회
의장 강 필 구

□ 총평(시사점)

- 미국은 50개 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연방 - 주정부 -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 하에서 지방정부는 카운티와 독립시, 그리고 카운티는 시, 타운, 빌리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 우리나라와의 직접비교를 위해서는 주정부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카운티(county)·독립시(independent city)는 도·광역시로, 시(city)·타운(town)·빌리지(villige)는 시·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타운은 기초자치단체이자 소규모의 자치 공동체로서 주민자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뉴저지주에 속해 있는 펠리세이드 타운(palisades municipal)을 방문하였다.
- 인구 2만명 규모의 연예산이 28,000,000달러인 해당 타운은 예산 배분이 주민(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시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그 밖에도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활발하다. 이는 미국 초기 정착민들이 미팅(meeting)이라 불리는 마을회의에서 유래된 문화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제가 분리되어 의사결정 방향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 익숙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 정책결정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므로 주민의 제안과 행정과의 소통과정이 매우 활발하고 주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 위주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매우 용이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주민을 해당 타운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행정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Chong PAul Kim 시장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 정책제언

- 지금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창구 마련에 힘써야 한다. 물론, 직접 참여는 큰 틀의 정책형성이 아닌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조화를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은 주민들이 주인이자 주민들이 살며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강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 구조를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총평(시사점)

- 뉴욕 첼시마켓과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옛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성공사례임
- 도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건물 등에 현재의 감각을 더함으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이 도시 활성화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정책제언

-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의 흔적이 담긴 건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
 - 현재 새뜰마을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대부분의 원도심의 경우 도로 등 인프라가 취약하여 건축물 철거 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이 추진 중임
 - 이 가운데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 필요
 -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물 등은 마을 공동시설이나 마을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침체지역을 문화, 예술, 쇼핑 등 특화 공간으로 재구성
 - 과거를 단순히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

구례군인회
의장 유 시 문

□ 총평 및 정책제언

-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그 중 핵심은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캐나다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상징성있는 옛 건축물을 카페나 상점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개발한 도지재생지보다는 역사와 시간이 수놓은, 날 것 그대로의 것에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도시재생 또한 옛것을 최대한 보전하고 그 역사를 담아낸 그릇에 새로움을 더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 문화관광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적 장점들을 잘 버무리고 관 주도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참여, 나아가 주민이 문화관광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적고 인구소멸 위기가 직면한 지역이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이 지닌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천년고찰 화엄사 등 풍부한 자연·경관·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과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신안군의회
의장 김 혁 성

□ 총평(시사점)

- 먼저 처음 미국이란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착륙 전 약 4,000m 상공에서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다.
모든 것이 놀라웠지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광활한 대지에 시원하게 잘 뚫린 도로였다.
어디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야말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며, 특히 섬으로만 이루어진 최고의 교통 불편 지역인新安군이라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두 번째 과자공장을 멋지게 탈바꿈 시킨 뉴욕의 첼시마켓과 양조장을 재래시장으로 재탄생시킨 캐나다 구더햄&위츠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 등 전면 철거 위주의 정부 주도형 정책과는 반대로 지역사회를 보존하는 방향의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습이였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갈 필요가 없으며 우리만의 독특한 옛문화를 살려내 놓어준 지역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정확하게 맞는 답은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지역의 역사가 담긴, 주민을 위한, 행복한新安군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확신이 든다.

- 마지막으로 펠리세이드파크 시장과의 만남으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강열한 의지와 변화하고자 하는 확고한 자세가 그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그려가는 모습에서 우리들이 본받아야하는 부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정책제언

- 기본적인 SOC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끊임없이 추진하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옛 문화들은 더욱 발전시켜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실 전라남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일반적인 도시재생 정책보다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가장 중점은 사람이 찾아오는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된 역사와 발맞춰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테마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우리 신안군은 이미 1004섬 신안, 사계절 꽃피는 섬, 1島 1뮤지엄 등 각각의 섬들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여 한가지 이상의 테마가 있는 지역으로 추진하였으며 퍼플섬의 탄생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 이제는 농촌에 맞는 도시재생정책 추진으로 옛것의 보존과 새로운 개발을 접목하여 독특한 농촌문화의 재탄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 총평(시사점)

- 선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우수제도 및 도시재생·문화역사 지구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와 아이디어를 학습할 수 있었음.
- 미국 의회의 좋은 점은 우리 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도 또 우리대로 새로운 방식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선진국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방안을 미국 여러 도시를 보며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문화사업을 기획·추진할 경우 개발과 보전을 적절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음. 특히 미국, 캐나다는 문화재 복원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도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복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는 체험이 되었음.
- 이번 연수는 처음 가보는 지역으로 미국의 선진문화를 많이 보고 경험하는 여행이 되었다. 하지만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해 심도 있는 확인을 할 수 없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정책제언

- 현재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생존을 위하여 관광문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드버리 같은 쇼핑센터 건립과 전남 천혜의 자연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총평(시사점)

- 미국, 캐나다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의회제도 오랜 기간 변화하며 발전해왔는데, 특히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음.
- 이러한 운영사례를 직접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주민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하는 의회로 나아가야함을 다시 한번 느꼈음.

□ 정책제언

- 미국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해 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태가 아님.
 - 지역주민들이 모인 회의장에 주민들에 의해 뽑힌 의원들이 시정을 보고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음.
 - 또한 예산, 조례 및 각종 규정을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결정함.
- 특히, 예산, 도시계획, 건축규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주민이 원하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내역이나 규정안을 배부하며, 회의 시에는 주민들이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민 참여도가 매우 높음.
- 우리 의회도 회기 중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주민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총평(시사점)

- Palisades Park는 인구 2만명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한인 비율이 가장 높은 타운이라 할 수 있다.
- 재정은 대략 연방정부에서 10%, 주정부에서 30%를 보조받고 나머지 60%는 자체 세원(재산세)로 충당한다.
- 시의원은 6명으로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씩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 시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이 있는데, 상위법으로 주법과 연방법이 있지만 시가 가진 자치입법권의 권한이 더 크다고 한다.
-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한다.
-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주민에 의한 자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 정책제언

- 미국과 캐나다의 지방자치는 지역별로 그 형태와 방식이 다양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민주적이며 자발적이라는데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헌장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또한 주민들이 구상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의회와 행정부의 건전한 동행 가운데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 총평 및 시사점

○ 이번 연수는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캐나다를 경유하여 다시 미국 동부로 되돌아오는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짧은 기간에 모든 여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다소 빠빠한 일정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빠빠한 일정과 장거리 이동에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어 다행이고 선진문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연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첫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번 연수에서 가게 될 미국, 캐나다의 도시 재생 성공사례와 해외 관광지 현실에 대해 생각 중 어느덧 13시간 가량을 비행하면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 심사를 마치자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8박 1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 먼저, 현재 도시 재생의 선두를 달리는 곳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뉴욕은 낙후된 지역의 건축과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수리·개량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시대를 넘어선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중에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바로 옆에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식료품점인 첼시 마켓이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 모범 사례인 것이다

빨간 벽돌이 돋보이는 외관이 특징인 첼시 마켓은 오래오 쿠키로 유명한 나비스코 공장을 이전하면서 버려진 것을 어윈 코헨이라는 사람이 건축가들과 함께 1990년대 초 마켓으로 재설계했고 건물 외관은 낡아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식자재 매장 등이 가득하였다.

낡고 오래되었다고 철거하거나 재건축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로 건물을 변화시켜 도시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도시 재생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수직적 개발이 아닌 참여와 소통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은 우리시도 사업하는데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폭포로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그 크기가 높이 55m에 폭 671m에 달한다. 폭포는 고트섬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 동쪽은 아메리칸 폭포이며 왼쪽은 캐나다 폭포이다. 오대호의 하나인 이리호수에서 나온 물이 강을 따라 흐르다가 폭포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많은 양의 수량과 물안개를 퍼트리면 떨어지는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장관을 이룬다.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떨어진 물은 다시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캐나다 양국에서 관리하는 거대한 관광자원이나 캐나다 쪽 관광객이 훨씬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캐나다에서 보는 나이아가라가 폭포가 훨씬 웅장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호텔, 카지노 등 관광시설이 풍부하여 체류형 관광을 원하시는 관광객은 캐나다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섬진강같은 관광자원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가 관광 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타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것이다. 그 곳에서 보고, 듣고, 먹고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사는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총평(시사점)

○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떠나 본격은 처음이다. 부푼 가슴을 안고 멀리 가는 만큼 필요한 준비물을 캐리어에 가득 담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역시나 다른 의장님들이나 수행원들의 짐이 한가득이다. 짐만큼 그들도 기대감이랄까, 어린아이가 소풍 가듯이 들떠있는 모습이다.

넓고 푸른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가깝게 느껴졌던 미국이 먼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드디어 미국 JFK공항에 도착했다. 분명 한국에서 점심때 출발했는데 12시간이 지난 지금도 점심이다. 처음이라 그런지 시차는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 우선 공항을 빠져 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엄청난 입국심사 대기 줄에 벌써부터 여행의 피로가 몰려오는 듯 하다. 벌써 20년도 더 된 911테러 때문인지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듯 해 보인다. 우리 팀 모두 별 탈 없이 입국심사를 끝내고 드디어 미국 땅에 들어왔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이다.

길이 막힌다. 금요일이라 그런가 첫 번째 여행지인 맨하탄까지의 길이 더 멀게 느껴진다. 창밖을 보니 TV에서 보던 미국식 주택이 여유롭게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첫 풍경은 그저 넓고 여유롭게 보인다.

드디어 맨하탄이 보인다. 영화에서나 본듯한 고층 건물이 빼곡하다. 입국심사때 시간을 지체해 센트럴파크는 일정 마지막으로 미루고 점심도 건너 뛴채 섬도시 맨하탄으로 향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맨하탄 중심에 있는 첼시마켓이다. 빌딩 숲 한가운데 버스에서 내리니 사람이 정말 많다. 버려진 과자공장을 리모델링 한 첼시마켓은 식당가와 기념품가게가 가득했다. 아직은 감흥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주위가 다 외국인인 것 빼고는, 그런데 아시아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맨하탄 가운데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호텔로 이동하였다.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런지 피곤이 몰려온다. 내일은 한번 직접 보고 싶었던 워싱턴으로 가는 만큼 기대가 크다.

뉴욕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드디어 국회의사당을 거쳐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항상 시위하고 있던 장면만 봐서 그런지 낯선 느낌이다. 그저 시민과 관광객들이 붐비는 관광지 느낌이다. 웅장한 백악관을 돌며 연신 사진을 담았다.

제퍼슨 기념관과 링컨 기념관은 생소했지만 가이드의 친절한 설명과 해박한 지식이 우리를 역사속으로 안내하는 듯했다.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링컨을 보며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와 인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꼭 보고 싶었던 워싱턴 기념탑은 어디를 가나 사진속에 담겨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도착했을때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사방이 트여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정말 매서웠다. 기념비 앞에

섰을 때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코끝이 찡해왔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속에서 드넓은 평야와 지평선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미국이 새삼 농업국가라는 것과 기름진 땅과 풍부한 수자원에 축복받은 땅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토론토를 가는 동안 바다와 같은 강과 한없는 들판에 또 한번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류현진의 도시 토론토에 왔다. 북쪽 나라라 그런지 약간 쌀쌀함에도 한국과는 다른 건축물들에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아파트와 건물들이 모두 발코니를 가지고 있었다. 약간 특이해 보이지만 집마다 바깥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요즘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간혹 테라스 아파트 광고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유럽 건축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토론토의 구시청과 해와 달의 모형을 형상화한 신시청, 그리고 광장, 유럽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지 관공서와 광장이 함께 있는 문화가 새롭게 느껴졌다. 시청 지하가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어서 시민의 편의를 우선시한 도시 계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옛 공장부지와 허름한 건물들을 재활용하여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게 조성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를 둘러보며 구도심 활성화 계획에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인구2만의 작은 대학도시 킹스턴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대학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어느덧 5일째,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의 거대한 건축물에 ‘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서구의 건축만 좇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국회의사당과 상원의회, 하원의회, 그리고 그 광장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에게 감동과 부러움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강을

건너 퀘백주에 들어가 몬트리올의 시청, 시의회, 까르띠에 광장, 아름다운 노트담 성당을 거치면서 그들의 광장과 거리문화가 과거와 현대에 이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저 관광객이 아닌 나에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마을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퀘백시의 청사는 전망 좋은 산꼭대기에 있었다. 여기는 모든 장소가 중세시대 그림의 한 장면이었다. 유럽의 성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호텔과 청사, 그리고 교회와 작은 집들, 현대식 건물보다는 과거의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여 꾸며놓은 영화 세트장 같았다.

7일째, 보스턴으로 이동하여 하버드대학교를 향했다. MIT와 하버드, 강 건너 세계 최고의 대학교가 눈앞에 펼쳐졌다. 한 마을 전체가 대학교다. 우리나라처럼 학생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산한 캠퍼스에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보스턴 주의사당이 위치한 중심가는 역시나 복잡했다. 하지만 빌딩숲이라기보다는 예전 공장이나 창고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놓은 느낌이었다. 또 시내 중심가에 옛 선구자의 공원형 묘지를 조성해 학생과 관광객들에게 역사 관광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뭇 우리나라의 서당이나 생가를 방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8일째, 벌써 뉴욕에서의 일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늘은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팰리세이즈파크는 1990년대부터 기존 유럽이민자들이 빠져나가고 한인들이 모여서 60퍼센트에 이르는 한인들이 구성한 자치구였다. 먼 미국 땅에서 한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한 지역에 모여 그들만의 자치구를 운

영한다는 것이 실로 대단해보였다. 시장은 지역자치구의 힘은 인구수와 그들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펠리세이즈파크를 더욱 영향력있는 자치구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이 대단해 보였다.

다시 맨하탄으로 이동하여 무역센터와 타임스퀘어를 방문하였다. 벌써 20년이 지난 911테러의 현장은 그들의 희생과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조성된 공원이었다. 희생된 장소에 그대로 기념비와 공원을 조성하는 행정에 자본주의 행정으로 조성된 우리의 삼풍백화점 희생비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전광판, 엄청난 규모의 센트럴파크, 그리고 세계 금융가의 중심 맨하탄의 무역센터 전망대에서 이곳이 세계의 중심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방송에서만 보던 미국의 그림은 그저 작은 액자 하나 정도였음을 느꼈다. 넓은 땅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은 미국이 세계적인 부국으로서 거듭나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 아울러 그들의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말끔히 청소해 주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도시계획,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디지털과 A.I.만을 향해가는 우리 사회에 작은 경각심을 심어준다.

□ 정책제언

○ 현재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노년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주거, 경제활동이 사회의 주 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도시의 경우 각 마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남아있는 노년층의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마을단위로 도시 재정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한 예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빈집 재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각 마을의 주민이 경영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 한가지는 우드버리, 여주와 같은 쇼핑 지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순한 쇼핑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네트워크 시대인 지금 실패가 보장되어 보인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 자원, 즉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쇼핑 플레이스를 조성해 관광과 체험활동, 먹거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휴식과 체험, 그리고 쇼핑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시로의 인구밀집은 막을 수 없어 보인다. 그들의 경제력을 지방 작은 도시로 끌어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휴식과 힐링, 투자와 자산증식, 노년의 안식처 등이다. 이는 대부분 군단위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넓은 땅과 천혜의 자연환경, 개발 호재 등으로 충족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방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며 소멸되더라도 좀 더 우위에 서서 흡수·합병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것이다.

□ 총평(시사점)

- 오래된 건물의 보전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조화
- 이민자 친화정책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 정책제언

○ 오래된 건축물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미국과 캐나다의 시청과 의회건물은 고풍스럽고 오래된 건물이 많았다. 또한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인 용도로 변경하여 과거 모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이 10년만 넘어도 다시 지으려하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태도와는 많이 달라보였다. 우리도 과거 우리가 살던 방식을 보존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오래된 공간을 복원하는 노력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미국은 이민자 집단으로 건국된 나라답게 이민자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한다. 트럼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이민친화정책 지수가 낮아지긴 했지만 뉴욕 중심가에서 본 미국의 인구 구성은 인종의 용광로답게 정말 다양했다. 대한민국도 해외 선진 이민친화정책을 수용하고 외국인도 한국 주류사회에 편입할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합순군인회 의장 하성동

□ 총평(시사점)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등한 권한으로 기능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정도가 심하면 정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연수 방문지 중 하나인 펠리세이즈 파크는 매달 한 달에 한번 의회가 열릴 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과 의원이 같이 논의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 캐나다의 어퍼타운과 로워타운에는 교회, 수도원 등 옛 기념물과 종교시설, 행정시설이 남아있어 과거 시가지를 이루고 있다. 옛 시설을 보존하고 관광안내소를 두어 즐길 수 있는 투어 상품을 안내하며, 환전 및 와이파이 이용도 용이하게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점은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 정책제언

- 펠리세이즈 파크의 제도를 반영하여 회기에 주민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의원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율도 높아져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것 같다.
-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보다는 캐나다의 어퍼타운과 로워타운 처럼 옛 시설을 살려서 역사와 이야깃거리가 많은 거리로 만들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까지 궁금해하여 찾아오게 하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면 잊혀진 옛 지역을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남군인회
의장 김 석 순

□ 총평(시사점)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8박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로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 본 의원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버려진 공장 건물이 문화를 만나 세계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된 캐나다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에 대한 소감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 1830년대 초 영국 이주민이 설립한 Gooderham & Worts는 1960년대 세계 최대의 위스키 공장으로 성장하였지만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금주법의 시행, 밀수 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쇠퇴하였고 결국 1990년 위스키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합니다.
- 2003년 토론토시는 10여 년간 방치된 낡은 공장과 창고를 극장, 갤러리, 신진 예술가들의 개인 상점과 공방, 레스토랑과 카페 등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토론토의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 19세기 중후반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에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 증류된 창의성의 공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세계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벤치 마킹하여 자국의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를 둘러보고 국내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들을 찾아본 후, 이러한 성공사례를 우리 농촌지역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농촌지역은 지역 인프라 부족, 고령화, 일손부족, 인구감소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또한 그 정책 중 하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대형 건물이나 창고는 삶의 흔적과 손때가 묻어나는 조그만 창고와 어느 시절의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 빈집과 빈 상가, 유년시절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공터로 대신하고, 예술가들의 작품과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카페는 지역의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아이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는 문화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품앗이 문화에 기반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젊은 세대의 시간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공동체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총평(시사점)

- 이번 연수를 통해 뉴욕의 링컨기념관이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방문하면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특히 우리 지역은 마한 유산의 보고로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장소를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캐나다의 팔러먼트 힐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정문화와 의사결정 과정, 의원과 시민의 소통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palisades park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운영과 시정협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방 의회의 역량강화와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 뉴욕의 첼시마켓,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몬트리올의 시내 등에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산업유적이나 공공시설을 문화예술공간이나 창업 지원센터로 변화시키거나,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정책제언

-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재생 사례에서는 과거 산업유적이거나 역사적인 건축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키거나, 현대적인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도시재생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영암군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과 콘텐츠,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재생 및 스마트 기술 접목 등 다양한 방식을 융합한 미래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구도심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우리지역 특색과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 술공장을 개조한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와 폐공장을 활용한 뉴욕의 첼시마켓처럼, 우리 영암군에서도 영암읍에 있는 대동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켓과 문화예술 등의 새로운 공간과 기능으로 재탄생시켜서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 지역에 특화된 자원이나 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몬트리올에서는 프랑스어 문화와 예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였고, 퀘벡에서는 몽모렌시 폭포와 어퍼타운과 로워타운 등의 역사적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도 월출산과 영암읍성, 구림 한옥마을 등의 자연 자원과 전통문화나 농특산물 등의 인문자원을 조합하여 월출산 생태도시 브랜드화 및 달을 형상화한 거리 조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의회

의장 김 경 현

□ 총평(시사점)

- 북미(미국, 캐나다)의 역사·문화·도시 경관·관광산업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군과 비교해 봄으로써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군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의 계기가 되었음.
- 각 국가별 다양한 특색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인공적인 색채를 가미하지 않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려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구시가지와 건축물들을 잘 보전·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자원을 보유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이후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구시가지의 노후화가 지역전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개발에 치중된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 국가는 구시가지 전체를 유적지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고유전통 문화재와 접목시켜 스토리텔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었음. 따라서 구시가지를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구시가지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진 사례로 여겨짐.

- 마지막으로 교통에서는 관광버스의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 설치로 운행 정보가 기록되고 운전기사들의 규정 속도, 운행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행락철 무리한 운영으로 관광버스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책제언

-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관광정책
 - 급속한 경제발전예 기여한 신도심 개발로 인해 북미의 구시가지처럼 잘 보존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화재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잠재되어 있는 구시가지는 최소한의 개발을 하고 개발 위주의 신시가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이 필요
- 다양한 소재를 개발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개발
 - 역사적 사건, 위인들의 생애, 영화촬영지 등 다양한 소재를 관광자원화하여 기존 건축물, 문화재와 접목한 창조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 거리예술 활성화
 - 관광지 및 도심광장에 개인 또는 그룹으로 버스킹 등의 연주와 예술 활동 제공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거리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특화된 관광 기념상품 개발
 -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과 초콜릿, 아이스와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화된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소득에 기여
- 관광버스 운행기록장치 도입을 통한 안전운행 유도
 -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보장과 규정속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장성군의회
의장 고재진

□ 총평(시사점)

- 전남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한 미국, 캐나다 국외연수는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현대 사회를 주도해 온 미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문화 등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추진되었다.
- 연수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곳을 둘러보기 위해 빠빠한 일정으로 소화되었다. 그러나 긴 차량 이동 중에 특별히 엄선한 가이드를 통해 방문지 뿐만 아니라 경유지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 해설을 들음으로써 미국과 캐나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여러 시찰지를 돌아보며 가장 크게 주목한 점을 꼽자면 하는 의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와 정책전반에 걸쳐 시민의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고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정책추진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면이 크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직

접적인 국민들의 의사를 듣고 설득하며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선진국다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 요즘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및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외의 현장에서 가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얻는 것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10일 동안 미국 캐나다 곳곳을 돌아보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장으로서 사고의 시야를 넓히고 문화적, 세대적인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수용성을 늘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연수소감을 마친다.

□ 정책제언

- 도시개발 정책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재생 대안 마련
 -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장성군의 경우 현재 광주인근 첨단3지구와 덕성행복마을 등 다양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선진국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군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 또한 우리 장성군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고려시멘트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캐나다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은 캐나다의 토론토 인근의 문화유산 건물로 19세기 대형 양조장이었던 공간을 재활용하여 상점 및 카페 전시실 등이 있어 현재 캐나다의 가장 트렌드한 관광지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우리 장성군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려시멘트 이전 시 관련 시설이나 폐광산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없애고 개발하기보다는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특히 우리는 낡고 오래된 것을 쉽게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시간과 그 시간이 만들어 낸 전통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느꼈다.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 그대로 남겨진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 등은 그 자체로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유형의 소중한 재산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보다 긴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 총평(시사점)

- 연수를 출발하기에 앞서 사전 간담회, 현지 자료조사를 통하여 사전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외연수 중에도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체험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하지만, 한정된 연수기간과 공휴일 등 여러 가지 현지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도시 · 시설 · 전통 · 문화 · 행정 · 의회의 기능 등에 대한 완벽한 조사활동을 다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이번 연수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이번 해외시찰을 통해 얻었던 가장 큰 소득은 역사와 전통,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는 곧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조경을 하고 녹지를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아도 그것은 속없는 알맹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걷고 싶은 거리는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고 문화가 숨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 굳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곳에 역사와 전통 문화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찰했던 장소 곳곳, 걷는 거리마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요소 요소들이

저를 사로잡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 권역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 하고 또 그것을 발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책제언

- 일단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거리조성을 했을 때 인공적인 걷고 싶은 거리 아니라 자연스러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 뉴욕 맨하탄 시내에서는 곳곳에 공사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철봉으로 만든 구조물들이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 벽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 맨하탄 건물들은 보통 10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위험한 건물들을 재건축을 하지 않고 놔둔 것일까? 그것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값을 더 쳐주는 습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전통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옛것을 지키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문화적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러한 구조물들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또한 길이 좁아 복잡하고 녹지는 없고 차들로 인해 매연도 많아 삭막하기도 하지만 뉴욕 맨하탄은 저러한 오래된 전통 있는 건물들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걷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은 단순히 도로 주변의 녹지나 조경, 보도블럭 상태보다는 주변 건물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를 치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건물들의 아웃테리어나 전통문화와 더 연관을 지

어 자연그대로의 거리를 조성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미국 뉴욕 야경, 100년이 넘는 건물들을 잘 관리하여 전통과 역사가 느껴지고 걷고 싶은 느낌을 주었으며, 보행자 도로도 물론 지장물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잘 정리 돼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녹지 조성과 보도블럭 등에 신경 쓴 흔적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캐나다 퀘벡에서도 건물의 아웃테리어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백년이 넘는 건물들로서 전통이 느껴지고 있고 혼잡한 돌출 간판 등은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보도블럭 등 보행자 도로 부분에 신경 쓴 흔적은 없었습니다. 건물들의 미관도 비싼 돈을 들여서 한 것이기 보다는 단순하고 깔끔한 것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즉, 결국 건물 미관도 큰돈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도 역시 전주나 잡다한 지장물들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전통과 역사가 느껴짐으로 해서 걷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거리 조성에 핵심은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비교시찰을 통한 전남만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것들
 - ① 지장물의 최소화
 - ② 인근 건물과의 조화로 상권 활성화 - 간판정비, 디자인을 살린 전면부, 부분적인 주차장 양성
 - ③ 녹지 공간 마련
 - ④ 전통과 역사를 테마로 한 거리 조성과 각 지역의 문화제 및 위인 발굴

□ 총평(시사점) 및 정책제언

○ 의회 운영 분야

- 이번 미국·캐나다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파크였다. 인구 2만명의 이 도시는, 한국 영토가 아닌 곳 중, 인구의 50% 이상이 한인으로서 한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의원이 6명이며, 그중 한인이 4명으로 의석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일컬어지며, 20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주민참여행정·주민자치를 펼쳐 나가는 모습은, 미국의 선진 의회제도를 보고 배우기 위한 이번 연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였다고 생각한다.

팰리세이즈파크는 시의원의 임기가 3년이며,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 선출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직접 선출에 의해 결정되나, 임기 1년 미만의 시의원 결원 발생 시에는 시의회에서 나머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원 시의원을 선출하는 특색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의회제도의 성격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지자체와 의회가 분리되어 견제하는 구조라면, 미국은 지자체와 의회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팰리세이즈파크도 한 달에 한 번, 시장과 6명의 시의원이 모여 회의하고, 예산, 인사 등의 안건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4번째 화요일은 의회가 열릴 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시장과 의원이 같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점이, 지방자치 역사가 깊은 미국의 저력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지방자치가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며 주체인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주민의 의견이 능동적으로 취합되고, 토론을 거쳐 정책화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되고, 주민에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강화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더 확실히 전하게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 도시재생분야

-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 등 도시 경쟁력의 약화로 쇠퇴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농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 하는데, 우리가 방문한 첼시마켓은 도시재생의 훌륭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다.

첼시마켓은, 1958년 뉴욕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폐허가 된 과자 공장을, 1990년대 도심 재개발을 통해, 로컬마켓이자 관광지로 변모시킨 사례로, 어느 마켓들 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특색있는 실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곳이다.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가져와야 하는, ‘예술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통 정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지나갈 그런 곳이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첼시마켓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성공사례들은, 주민의 아이디어와 능동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렴하여,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민관이 힘을 합하였다는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

우리 진도군도 도시재생·농촌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 군이 가진 수려한 자연경관, 예술과 문화, 역사적 건축물 등 많은 자산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공간과 공간의 접근성을 늘려,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이루어야 한다. 더불어, 농촌이라는 특성을 살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과 공동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민이 살기 좋은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관광객들도 다시 찾게 되는 도시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역사와 문화의 단단한 기반을 바탕으로, 관민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공통된 목표로 도시를 바꿔나갈 때, 진정한 도시 ‘재생’ 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